

# 남구의회 청사 신축 논란

## 행안부 '보류' 지시 받고도 1억 설계용역 발주

### 구청·의회 "행안부가 비용 보전" ... 행안부 "사실 무근"

광주시 남구가 남구의회 청사 신축을 추진하던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구역 개편안이 확정될 때까지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의회청사 설계 용역을 발주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남구는 의회 청사를 남구 청사 내 부지로 옮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1억원을 들여 지난달 초순 청사 설계용역을 맡겼다.

남구는 대남구에 위치한 의회를 청사 내 차량 대기소 임시건물을 옮겨 한 뒤 30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을 추진해 왔으나, 행안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추진 보류'라는 지침을 남구에 내려보냈다. 행정구역 개편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물 신축을 연기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남구는 행정구역 개편안 확정시기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지난 4월 광주 시로부터 의회청사 신축 예산 20억원을 내려받자, 행안부와 '착공은 하지 않고 설계 용역만 하기로' 협의한 뒤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남구와 남구의회는 2007년부터 청사가 따로 떨어져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 다른 곳에 통합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추진하던 중 행안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자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조영표 남구의회 의장은 "현재 의회가 입주한 건물의 균열이 심화하는데 예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숙원사업인 청사 이전을 더 이상 미루기 힘

들었다"며 "행정구역이 개편돼 의회청사 설계가 무용지물 되더라도 비용은 행안부가 보전해 주기로 구두 협의했다"고 말했다.

남구 관계자도 "의회 측의 요청과 행정 효율성 등을 두루 감안한 결과 의회청사 설계에 대한 용역이라도 발주하게 됐다"며 "행안부와 수차례 만나 협의한 만큼 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며, 용역비용도 행안부가 전액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구와 협의를 벌여온 행안부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남구와 남구의회가 주장한 '설계 용역비 중 행안부로부터 보류 지시를 받자'는 논리를 일축했다.

한편 지난 1일 광주시 공공디자인 위원회는 남구청사 내 남구의회 신축 안을 주변 건물과 조화롭게 디자인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대-생활관 운영업체 마찰

### 학생들 방학중엔 밥 굶어?

#### 16일부터 식당운영 중단

수익금 배분 문제로 대학측과 갈등을 빚어온 전남대 생활관(기숙사) 운영업체가 방학중 식당 운영을 중단하기로 해 학생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3천여명이 입주해 있는 이 기숙사는 방학중에도 절반 가량의 학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숙사 운영업체인 ㈜U사는 9일 "학교측으로부터 14억여원에 달하는 3개월치 식비를 받지 못해 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있어 부득이 오는 16일부터 방학기간 식당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학교측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식당 운영정보를 학교측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초보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심지어 자판기나 동전 빨래방 운영권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남대측은 "운영업체

가 초과이익금 분배 회피를 위해 임대계약금 축소신고, 불법적인 식당 재임대, 결식 학생 현황 은폐 등 협약을 위반해 운영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가 식사 제공을 중단하면 급식 대체수단 강구와 함께 급식업체 교체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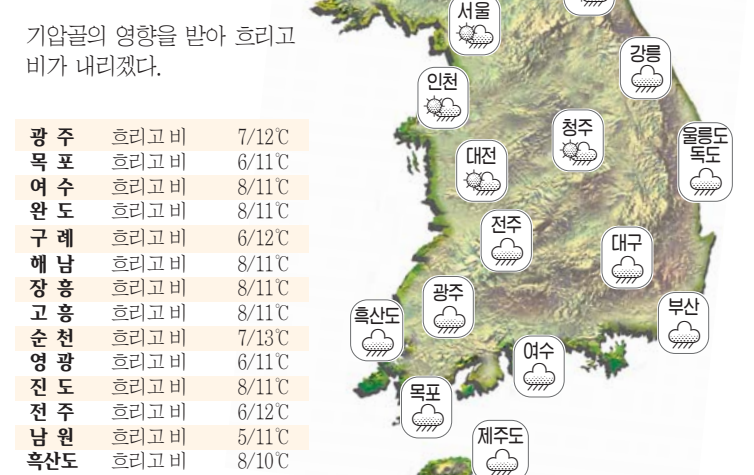
지역 중견 건설업체가 민간투자시설사업(BTL)방식으로 건립한 이 생활관은 2005년 운영업체인 ㈜U사와 식당 등 부속시설 운영 수익금이 4억여원을 초과하면 초과수익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개관 이후 수익금 배분 과정에서 학교측은 업체측이 식당 편법운영 등으로 수익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업체측은 정당하게 계산했다고 맞서면서 학생을 볼모로 한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오늘 날씨

추석추석 날씨리



지역	기온	강수량	습도	풍속
광주	7/12°C	0.5~1.5m	60~70%	1.0~2.0m
전주	8/11°C	0.5~1.5m	60~70%	1.0~2.0m
대구	8/11°C	0.5~1.5m	60~70%	1.0~2.0m
부산	8/11°C	0.5~1.5m	60~70%	1.0~2.0m
서울	7/12°C	0.5~1.5m	60~70%	1.0~2.0m
인천	8/11°C	0.5~1.5m	60~70%	1.0~2.0m
대전	8/11°C	0.5~1.5m	60~70%	1.0~2.0m
충청	8/11°C	0.5~1.5m	60~70%	1.0~2.0m
경북	8/11°C	0.5~1.5m	60~70%	1.0~2.0m
경남	8/11°C	0.5~1.5m	60~70%	1.0~2.0m
제주	8/11°C	0.5~1.5m	60~70%	1.0~2.0m

## 광주도시공사·도시철도공사

### 불우이웃 사랑나눔 눈에 띄네

광주시도시공사(사장 김영진)와 광주시도시철도공사(사장 오형원) 등 공공기관들이 연말을 맞아 독거노인, 불우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나섰다. 경기 침체로 인해 기부자 및 기부물품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예년보다 기부액을 늘리는 등 '나눔'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시 도시공사는 지난 8일부터 1주일 간을 사회공헌기간으로 정해 임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이 영구임대아파

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간다.

지난 8일 영구임대아파트 불우 독거노인 47명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성금을 전달했으며, 9일에는 화정동에 위치한 '대광 청소년의 집'을 방문, 위문품과 성금을 건넸다. 또 15일에는 사랑의 식당, 사랑의 쉼터 등 무료식당에서 노사가 합동으로 자원봉사자 나섰다. 또 도시공사 전 직원들로 구성된 나누미 봉사단은 이달 내로 생촌·하남 영구임대 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1부서 1사회복지시설' 결연을 해 온 시 도시철도공사도 '원 앤 원(ONE&ONE) 사랑나눔' 캠페인에 돌입, 지난 7일부터 '밀알의 집', '동명치매요양원', '인광치매노인병원' 등을 방문해 위문품을 건네고,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올해 2천만원의 성금을 불우이웃 돕기에 내놓은 도시철도공사는 특별기금 500만원을 별도로 마련해 국군장병위문과 불우이웃돕기, 크리스마스 스텝 구매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시 도시공사 관계자는 "경영혁신 일환으로 강도 높은 예산절감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사랑의 쌀 운동만큼은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25% 늘렸다"며 "앞으로도 시민 섬김의 정신으로 주변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김명한 5·18묘지 관리소장 '1년 더'

### 적임자 못찾아 재발령

김명한(54) 국립 5·18 민주묘지 관리소장(4급)이 관리소장직을 다시 맡게 됐다.

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공모 절차를 밟았으나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해 관련법에 따라 김 소장을 다시 발령냈다. 임기는 1년. 국가보훈처는 내년 5·18 민주절 30주년 기념행사가 끝나는 대로 공모절차를 밟아 신입 관리소장을 임명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3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3차 공모를 하기에 시간이 너무 박한데다, 다른 내부 직원으로 발령 내자니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떨어질 것 같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보훈처로 복귀한 김 소장을 관리소장으로 다시 전보하는 방식으로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소장은 지난해 12월 8일 관리소장직 개방형 직위공모제 시행(2005년 9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공무원 인사발령으로 소장에 첫 임명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오늘 세계인권선언 61주년

### 인권위 광주사무소 기념행사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는 '세계인권선언 제61주년'을 맞아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광주·전남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2009 인권영상공모전' 시상식, 축하공연과 기념식, 문화공연과 인권선언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문화행사는 민족예술단 내벗소리, 청소년밴드 미르, 놀이패 신명 등이 참여하며, 폐막공연에는 가수 강산에가 출연한다.

이날 행사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인권사회'를 위한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자 마련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유지비 걱정! 겨울철 세균 걱정!

## [휘센 인버터 냉난방기]

1년만 사용하시면 450만원이 절약됩니다!

### WHISEN 시스템에어컨

WHISEN 구입 문의처 시스템전문점 호남